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 본격화

전남도-부산시-경남도 내달 8일 코엑스서 선포식

전남 6개 분야 등 2012년까지 35개 프로그램 개발

전남도와 부산시, 경남도 등 3개 광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전남도는 “다음달 8일 서울 코엑스에서 부산시, 경남도와 공동으로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 선포식’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선포식에는 3개 시·도의 정·관계 인사와 관광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다.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미 구축한 관광 기반시설 등을 제고하고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에 따른 직·간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남해안 3개 시·도인 전남도, 부산시, 경남도가 상호 연계 공동으로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 홍보를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이다.

3개 시·도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모두 210억원을 투입해 시간여행, 맛기행, 멀티 플랫폼, 그린, 크루즈 등 5개 테마로 나눠 35개 프로그램에 걸쳐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동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남해안의 맛과 기의 발길’, ‘이순신 밥상 체험’, ‘남중도시 연계 크루즈’, ‘절경과 함께 한남해안’, ‘남해안의 전설따라 바다여행’, ‘남해안의 보물을 찾아서’, ‘남해안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보 여행길’ 등이다.

전남도가 맡은 프로그램은 ▲소금

■ 전남 6개 프로그램

▲ 소금이 온다

▲ 공동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 낙지요리 웰빙여행

▲ 막걸리와 흥어가 만났을 때

▲ 태백산맥 문학기행

▲ 자전거로 남해안 섬 명소 탐방

어가 만났을 때 ▲태백산맥 문학기행 ▲자전거로 남해안의 섬 명소 탐방 등 6개 분야다. ‘소금이 온다’의 경우 신안·영광·해남의 소금 문화와 염전 체험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막걸리와 흥어가 만났을 때’는 흥어잡이와 경매과정, 흥어 관련 음식을 관광 콘텐츠로 만들게 된다.

전남도는 3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근 6개 분야 프로그램 주관 사업자를 공모해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등으로 조성된 문화관광 자원을 이번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을 통해 프로그램화 해 운영함으로써 남해안 관광의 핵심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행’, ‘남해안의 보물을 찾아서’, ‘남해안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보 여행길’ 등이다.

전남도가 맡은 프로그램은 ▲소금

이 온다 ▲공룡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 낙지요리 웰빙여행 ▲막걸리와 흥

했다.

기상청이 당분간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전남지역에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일조량이 충분해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수고는 상승 및 염분 등 적조 생물 최적 생장 조건까지 적합해지면 적조 대량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산과학원은 이에 따라 “적조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어민들은 양식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수산과학원은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를로디니움 밀도가 1㎥당 300개체 이상이면 적조주의보를, 1㎥당 적조생물 밀도가 1000개체 이상일 경우 적조 경보를 발령한다.

통영~여수 해역의 경우 4곳의 조사 지점에서 1㎥당 0.2~0.3개체가 새롭게 출현했고 여수~완도 외나도~소리도, 덕우도~청간도 해역에서 1㎥당 0.1~0.7개체가 발생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김대중·노무현 기념사업 추진

내달 기념사업회 창립

광주에서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김대중노무현대통령기념사업회는 22일 “김 전 대통령의 1주기 추모행사가 마무리된 이후 9월 중 창립대회를 열고 김대중·노

무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이를 위해 김대중평화센터 이희호 이사장을 만나는 한편, 노무현재단을 방문해 기념사업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통영~여

수산과학원 경고

전남 남해안 적조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고수온이 지속되고 일사량이 증가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이 대량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통영~여

수~완도 해역을 대상으로 적조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코를로디니움 밀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산과학원은 조사결과, 현재 수준으로는 코를로디니움 밀도가 낮아 수산생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바다 수온이 24도 이상, 염분이 32

내외로 유지되고 일사량이 증가할 경우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를로디니움 밀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산과학원은 지난 20일까지 이를 해역에 대한 적조 생물 밀도 및 분포 상황, 해수 온도 및 염분 등을 검사해 통영~여수~완도 해역에서 새롭게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를로디니움의 출현을 확인했다.

통영~여수 해역의 경우 4곳의 조사 지점에서 1㎥당 0.2~0.3개체가 새롭게 출현했고 여수~완도 외나도~소리도, 덕우도~청간도 해역에서 1㎥당 0.1~0.7개체가 발생

했다.

기상청이 당분간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전남지역에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일조량이 충분해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수고는 상승 및 염분 등 적조 생물 최적 생장 조건까지 적합해지면 적조 대량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산과학원은 이에 따라 “적조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어민들은 양식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수산과학원은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를로디니움 밀도가 1㎥당 300개체 이상이면 적조주의보를, 1㎥당 적조생물 밀도가 1000개체 이상일 경우 적조 경보를 발령한다.

통영~여수 해역의 경우 4곳의 조사 지점에서 1㎥당 0.2~0.3개체가 새롭게 출현했고 여수~완도 외나도~소리도, 덕우도~청간도 해역에서 1㎥당 0.1~0.7개체가 발생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김대중·노무현 기념사업 추진

내달 기념사업회 창립

광주에서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김대중노무현대통령기념사업회는 22일 “김 전 대통령의 1주기 추모행사가 마무리된 이후 9월 중 창립대회를 열고 김대중·노

무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이를 위해 김대중평화센터 이희호 이사장을 만나는 한편, 노무현재단을 방문해 기념사업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수초빙공고

■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 모집분야 : 사회복지전공

• 모집인원 : 0명

■ 지원자격 및 학력 등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수석후 5년 경과된 자로 선임이 결실하고, 교육부서에서의 인증과 품위를 갖춘 자

-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광주지역 거주 가능자

■ 지원서류

- 지원서(소정양식)/본교홈페이지(각종서식 2번)첨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출판 및 학제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원본 각 1부

- 외국어로 된 저작은 본인의 확인인 날인인 번역문 첨부

- 박사학위는 원본 1부와 번역본 1부(외국어는 논문은 국문초록 포함)

- 연구실작성(소정양식)/본교홈페이지(각종서식 2번)첨부

- 연구실작성(본인의 확인인 날인인 번역문 첨부)

- 연구실작성(외국어로 된 저작은 번역문 첨부)

- 국제학회지, 학술지 등에 출판된 글이나 저작으로 인정되는 저작물

- 저작증명서(학술지 등에 출판된 글이나 저작으로 인정되는 저작물)

- 저작증명서(학술지 등에 출판된 글이나 저작으로 인정되는 저작물